

## 지역에서 최종치료까지...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742억 원 지원 결정

- 중환자실 확충, 소아·고위험 산모 치료 인프라 보강 -
- 수도권에만 있는 첨단 암치료장비인 양성자치료기, 비수도권 도입 지원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국정과제인 지역·필수·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\*을 대상으로 중환자·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로 총 74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\*\*하였다.

\* 17개 시·도별 고난도 필수의료 제공,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·조정하는 중추병원으로,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정

\*\*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·고난도 시설·장비 지원사업  
(국비 812억 원, 지방비 812억 원 등 총 사업비 2,030억 원, '25년~)

정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 치료 역량을 갖춘 핵심 병원을 집중 육성하여,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'25년부터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·장비를 지원하고 있다.

올해 지원은 중증·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. 부산대학병원과 강원대학병원, 전북대학병원 등 다수의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을 확충한다. 경북대학병원과 제주대학병원은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을, 충북대학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을 확충하는 등 산모·신생아·어린이가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.

또한 전남대학병원에는 로봇수술기를 지원하고, 충남대학병원에는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**혼합형(하이브리드) 수술시스템**을 구축하여 **고난도 수술의 정밀도를 높인다.**

특히 지역에서도 **세계적 수준의 정밀 암치료를** 받을 수 있도록, 칠곡경북대학병원에 **양성자 치료장비 도입**을 지원한다. 양성자치료는 기존의 엑스선(X-ray) 기반 방사선치료와 달리, 양성자 입자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정밀하게 파괴하는 **첨단 방사선 치료기술로**,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**부작용 감소와 치료 효과 향상**을 기대할 수 있다. 수도권에 설치된 첨단 암치료 장비를 지역에도 확대하여, 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·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, **지역 내에서 첨단 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** 할 계획이다.

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등 지역의 **중증·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** 할 예정이다.

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2차 공모를 거쳐 아직 기관별 편성예산을 채우지 못한 시·도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 및 평가 후 지원할 예정이다.

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“이번 지원은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, **지역에서도 중증·고난도 치료가 완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**”라며, “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거주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**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**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(시설·장비지원) 개요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공공보건정책관실<br>공공의료과 | 책임자 | 과 장 | 백형기 (044-202-253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재혁 (044-202-2531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주무관 | 장성현 (044-202-2537) |



□ 추진 근거

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제⑤항

\*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책임의료기관의 시설·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

□ 지원 대상: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

| 시도 | 권역 책임의료기관 | 시도 | 권역 책임의료기관 |
|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---|
| 서울 | 서울대병원     | 강원 | 강원대병원     |
| 부산 | 부산대병원     | 충남 | 단국대병원     |
| 대구 | 경북대병원     | 충북 | 충북대병원     |
| 인천 | 가천대길병원    | 전북 | 전북대병원     |
| 광주 | 전남대병원     | 전남 | 화순전남대병원   |
| 울산 | 울산대병원     | 경북 | 칠곡경북대병원   |
| 대전 | 충남대병원     | 경남 | 경상국립대병원   |
| 세종 | 세종충남대병원   | 제주 | 제주대병원     |
| 경기 | 분당서울대병원   |    |           |

□ 지원 내용 : 국비 812억 원(지방비 812억 원, 자부담 406억 원 매칭 예정)

- (내용) 고난도 수술·치료 인프라 및 중환자 진료시스템 구축

- (수술·치료 역량 강화) ^수술실 인프라 첨단화, ^중증질환 치료 장비 확충 등 중증질환 최종 치료 역량 강화 지원
- (중환자 진료 선진화) 중환자실 시설·장비 개선, 특수 중환자실 확충 등 중환자 진료 관련 시설·장비 개선 지원

- (방식) 기관별 기본 단가(80%) + 차등 단가(20%, 사업계획서 평가) 구분  
→ 기관의 전략적 투자 유도\*

< '26년 권역책임의료기관 편성단가 >

| 구분       | 총액       | ①수술·치료 역량강화 | ②중환자 진료 | ③차등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         | 수술실 확충 등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서울 (1개)  | 65~110억  | -           | 65억     | 사업계획 타당성 등<br>평가<br>* 기관당 최대 45억 |
| 지역 (15개) | 105~150억 | 52.5억       | 52.5억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세종(1개)   | 30~75억   | 15억         | 15억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합계 (17개) | 2,030억   | 802.5억      | 867.5억  | 360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1,670억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의료기관 개원시기('20년) 고려하여 별도 분류